

다산포럼



김순경
세명대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학회 회장

지난 3월 방영을 마친 넷플릭스(Netflix) 드라마 '더 글로리'가 '학폭' (학교 폭력)을 사회 이슈로 부각시켰다. 여고시절 '학폭'을 당해 몸과 영혼까지 망가진 피해자가 성장해서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드라마에 등장하는 '학폭'의 내용이 참으로 사악하고 섬뜩하다. 글로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가해자들이 따돌림 대상자를 고문하고 학대한다.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 중 하나가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자를 향한 복수에는 오로지 응징만이 있을 뿐, 화해도 타협도 없었다. 그야말로 '달콤한 복수'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도 과연 이런 '달콤한 복수'가 가능할까? 확실히 아닐 것이다. 최근 발생했던 두 가지 사례는 '학폭'이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청소년기의 일탈적 현상이 아니라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학폭' 역시 사회의 축소판으로 가해자나 피해자가 속한 계층과 긴밀히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경찰 서열 2위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학폭' 문제가 불거져 낙마한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군은 가해자였다. 민족사관고 시절 정치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피해자들에게 '빨갱이 XX'나 '돼지XX'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한다. 이 때문에 두 명의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학폭'의 두 얼굴

나 자살을 시도하다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으로 민족사관고에서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지자 무려 열 차례나 징계 불복 절차를 거듭한 끝에 대법원까지 가서야 전학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반포고로 학적을 무난히 옮겼다. 게다가 반포고에서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생활기록부에서 '학폭' 가해 내용을 삭제하는 안건으로 학폭위가 열렸는데 "학생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충동적 행동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

가해자의 아버지인 정순신은 한동훈 법무장관과 서울 법대 동문으로 사시 37회 동기며, 현 대통령과도 서울 중앙지검 시절에 '인권 감독관'으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아들의 '학폭'에 따른 강제 전학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2018년 무렵이다. 그렇게 검찰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인물에게 '학폭' 가해자인 아들이 '상위 1% 기득관'이라며 "판사급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말을 자신 없이 하곤 했다고 한다. 학폭위에 출석한 피해 학생이 "결국엔 가해자가 이기는구나"라고 체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막강한 아버지를 둔 아들이 실사 '학폭' 가해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고 박주원의 경우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다. 고 박주원은 강남의 진선여중에 다닐 때부터 '학폭'에 시달렸다. 친구 내 명으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강화도 꼬마"니 "뺨 같지 않은 게 재수 없다"는 등 600개가 넘는 욕설에 시달려야 했다. 어머니가 답답해 학교를 찾아갔더니 "자존감이 낮아 대응 못하는 건데 뭘 할 수 있겠냐"며 오히려 아이가 문제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한다. 매일 악몽에 시달리는 것을 보다 못한 어머니는 딸을 강화도로 전학시켰고,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다시

강남의 은광여고로 옮겼다. 그런데 여기서도 '학폭'은 그치지 않았다. "친한 척 한다"든가 "재수 없다" 등의 욕설과 함께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박주원은 결국 홀로 외롭게 다녔던 수학여행을 끝으로 2015년 5월, 7층 빌라의 옥상에서 몸을 던져 16세 쫘다운 삶을 마감해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도 이어졌다. 딸의 억울한 죽음, 참적(慘慼)을 당한 어머니는 주변 지인의 소개로 1000만 원의 수임료를 어렵게 마련해 이른바 '조국 흑사'의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 34명을 고소했지만 정작 재판의 결과는 어이없었다. 2022년 1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했지만, 2022년 9-11월에 진행된 세 차례의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모두 불충실해 어이 없이 패소하고 말았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불충실으로 패소했다는 사실을 5개월 동안이나 유족인 어머니에게 숨기다가 최근야 밝혀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어머니는 4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 놓아 울어 봐도 분통이 터져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며 '제 앞에 있는 건 죽을뿐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자식을 죽게 한 가해자가 오히려 승소한 기막힌 소송 과정을 공개했다. 고 박주원의 유족이 정 변호사처럼 권력이나 돈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어이없이 패소했을까? 어머니 이기철 씨는 소송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정소 노동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계층이 '학폭'이나 소송 과정에 관련된다면 반증하는 게 아니라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만든 사건을 불찰으로 받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 변호사 아들의 행동 지침인 '강악약강'(강한 자에겐 약하게 나가고, 약한 자에겐 강하게 나간다)의 방식이 이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글로벌'하게 '학폭'을 이길 방법은 없을까?

김하림의 차이나 4.0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중국 199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을 Z세대라고 지칭한다. 15년을 한 세대로 간주하는 현재 추세에 따르면, 1950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한 그룹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세대, X세대(1965~1979), Y세대(1980~1994), 다음의 제 4세대인 셈이다. Z세대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점유하여 대략 2억 6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거대한 규모로 차세대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서구의 같은 세대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다면, 중국의 Z세대는 "중국이 자본주의를 구했다"는 우스갯소리일 수만은 없는 영향력을 발휘한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서 성장했다.

유복한 환경에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이 강력히 시행되던 시기에 태어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점이 이들의 특징이다. 이전 세대에 비해 자신감이 넘치고 교육 수준도 높으며, 독립성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하며, 글로벌 시야와 이성적 마인드도 구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소비 성향이 높고 소비 방식이나 상품 선호

중국의 Z세대

도도 기성세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Z세대의 소비 특징은 주로 자신의 '좋아'에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가치가 높고 재미있고 개성적이고 독창적이라고 생각한 물건에 대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다. 이전 세대가 명품 구매에 치중했다면, Z세대는 소비 내셔널리즘이라고 명명될 정도로 중국의 전통, 역사·문화 요소와 현재 트렌드를 결합한 국산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Z세대는 중국이 이미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들어선 상황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애국주의와 자부심이 강하다.

한편으로 Z세대도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시간은 압축되고 급속한 변화를 낳았으며, 그 변화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경험과 자녀의 현실이 거의 다른 차원처럼 동떨어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간극이 생기고 있다. 그 간극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전혀 다른 연애와 결혼관이라 할 수 있다.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의 연애와 결혼에 강하게 개입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Z세대는 결코 이러한 부모 세대의 의사에 따를 생각이 없다. 이 갈등이 커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비혼주의나 동성애도 증가 추세여서 간극은 더 커지고 있다. 결혼과 주택 문제가 얽혀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대도시의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양가의 부모는 합작회사를 꾸리듯이 협조하여 조건에 맞는 주택을 구해야 한다. 여기에 거주 이전의 제한이 있는 호구(戶口) 정책도 커다란 걸림돌이다. 이 지난한 과정에서 혼사가 무산되기도 하니, 결

혼과 주택이 Z세대의 최대 고민이다.

세계적 불경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Z세대는 취업이 힘든 실정이다. 2022년 대학 졸업자 수는 107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16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실업률도 2022년 7월에 19.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Z세대는 직장을 구하는 조건으로 급여 수준, 개성 존중과 의견 수용, 워라벨의 세 가지를 중시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직장은 많지 않고 취업 예정자는 많으니 더욱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세대를 반영하는 유행어로 첫째 '땡땡'(躺平)이 있다. '뚱뚱이 눕다'는 의미로, '침대족' '잠자리족'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노력하지 말고 과도한 경쟁을 피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의 고압적인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의지로 똑바로 편안하게 핸드폰만 들고 누자는 것이다. 기혹한 생존 전투에서 피폐해져 버린 사람들이 누움으로써 거기서도 망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둘째는 '내이취안'(内卷). 원래는 학술 용어였으나, Z세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내부 경쟁을 칭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좋은 학교, 직장, 승진 기회 등은 제한돼 있으니 이를 쟁취하기 위한 경쟁은 과열되고, Z세대는 살아남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 셋째로 초조하고 불안한 정서를 의미하는 '쥐아오뤄'(焦虑). 초조함을 느끼는 영역은 모든 방면으로 향하고 있고, 일종의 공황장애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Z세대는 자신들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미래 중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이다. 이들은 향후 중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기고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반말은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은 말'이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존중을 기대하고 있을 때 반말을 쓰면 '아랫사람에게 하듯 낮추어 하는 말'로 들리게 된다. 그래서 '너 왜 반말이야?'라는 반말이 일기 쉽다.

반말은 수평적인 관계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인데,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피해야 한다. 나이는 사람이라고 젊은이에게 슬슬 말끝을 흐리다가 반말을 하면 듣는 이는 부아가 치민다. 곧 토라져 '왜 자꾸 반말하세요?'라고 따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에 살며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외국인에게 함부로 반말하는 한국인을 외국인들은 매우 불쾌하게 여긴다. 이처럼 반말이 불쾌한 이유는 하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다. 존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사람에게겐 자아 존중감이 있다. 그것을 손상당하면 몸에 상처를 입는 것과 똑같이 고통을 겪는다. 아니 많은 경우, 더 심한 고통을 겪고, 후유증도 오래간다. 무시와 모멸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들도 여럿하다.

위세 부리는 말의 가벼움

201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지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이유는 한 입주인이 반복적으로 모욕감을 준 것이었다. 동료 경비원들은 "평소 사모님이 폭언을 하고, 하인 다루듯이 했어요. 5층에서 떡을 던지며 먹으라고 하는 등 경비원들에게 모멸감을 줬다"고 말했다.

우리는 말로 상황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상대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원한을 쌓는 일이 된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는 '갑질'이고, 만약 제3자가 그걸 봤다면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것이다.

2011년 12월 19일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병문안을 위해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찾은 길에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자 김 지사는 "나, 도지사 김문수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실은 "예"라고 대답하고, "김문수 도지사"라고 거듭 말해도 "예 소망합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사무적으로 응대했다. 김 지사는 곧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십니까"라고 물었고, "누구냐고?"라고 반말로 나왔다. 무슨 일 때문이냐고 하자 "내가 도지사인데 그게 안 들려요"라고 힐난했다. 상황실은 "긴급 전화"를 걸었으니 그에 맞게 응대할 것인데, 김 지사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는 모양새였다. 이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됐을 때 누가 타격을 입었을까? 모두 알다시피 김 지사가 치명상을 입었다.

정치인의 말은 생중계가 아니라더군. 누군가가 촬영하거나 녹음하고 있어서 다 공개될 것처럼 신중해야 한

다. 3월 22일 장애인 국회의원 의원회 국회 현안 질의를 하던 중,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자리를 뜨자 "제가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 기관장은 처음 본다. 사무총장 뭐하는 사람이나. 국회를 뒤로 보는 거냐"라고 책상을 치며 호통쳤다. 박찬진 사무총장은 "무슨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제가 (이석하라는) 메모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메모를 준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했고, 메모를 줬다는 선관위 과장이 해명에 나서자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들어!" "어디서 배워 먹은 거야"라고 반말로 소리를 질렀다.

장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힘이 센 사람이다. 장 의원은 행안위 회의를 마치기 직전 "앞으로 국회 출입인 됩니다. 알았어요?"라며 못박았다. 그렇게 혼쭐을 냈다. 질의 도중 피감기관장이 위원장의 허가 없이 자리를 이석한 것은 잘한 행동이라 볼 수 없지만 심할 정도의 삿대질과 고향, 반말을 쓴 것은 너무 지나쳤다. 우리가 밝은 말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파장은 매우 크다. 장 의원이 위세를 부리는 것을 본 사람들의 판단은 평판으로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오랜 속담에 이런 게 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옛사람들의 충고다. 나는 이렇게 고쳐 말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말이 따뜻하다."

社說

범죄 무방비 노출 지적장애인 보호 대책을

최근 지적 장애인들이 잇따라 범죄에 노출돼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사법 대응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공갈,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신상 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적 장애를 가진 B 씨를 2015년부터 6년 동안 폭행하고 협박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당을 운영하던 B 씨에게 "일을 돕고 싶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받아 챙기고 수입차와 명품 시계를 사도록 유인해 빼앗았다. A 씨의 갈취로 생활이 어려워진 B 씨는 식당을 접고 대리운전까지 하게 됐다.

장흥 지역 지적 장애인 여성에 대한 집단 성범죄 의혹도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가족의 고소장에 따르면 주민 10여 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C 씨에게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 한 명은 기소됐지만, 경찰이 나머지에게 대해 '불송치' 결정하자 피해자 측이 이익을 제기해 검찰이 수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제압당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범죄에 저항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적 장애인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음에도 대응 체계는 제자리 걸음이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사건 성패가 갈리는데 경찰관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경찰이 C 씨를 조사할 때도 규정 미비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발달 장애인 전문 단계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장애인 대상 범죄 전담 수사 인력을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이 범죄를 당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기관도 적극 지원하고 양성해야 할 것이다.

고흥·순천을 우주 강국 도약 전초기지로

순천에 우주발사체 단(段) 조립장이 들어선다. (주)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25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해 순천 울촌1산업단지에 2만 3140㎡ 규모의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조립장은 발사체의 각 단을 제작하고 기능을 점검하는 시설이다. 한화 측은 조립장이 완공되면 2027년까지 네 차례의 누리호 추가 발사는 물론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위한 독자 민간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조립장 유치에는 고흥과 순천, 창원 등이 경쟁했다. 한화 측은 향후 사업 일정과 운영 효율성·경제성 등을 고려해 우주 및 국토개발 분야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순천을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조립장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점과 정주 여건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정 결과에 대해 순천시는 "우주산업은 남해안벨트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일로,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 지구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지정된 고흥군은 "연관 산업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시군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남을 우주발사체 제조를 위한 거점으로 삼고 본격적인 우주산업 육성에 나서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한화 측은 고흥에도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부지가 조성되는 대로 우주발사체 핵심 구성품 제조 시설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이어 첫 달 궤도선 다누리호 발사를 성공시켰다. 전남도와 고흥군, 순천시는 한화 측과 함께 지역 내 우주발사체 시설들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담양군 대덕면에 사는 송영희(76) 어르신은 50년 넘게 정원을 가꾸고 있다. 이른 봄 꽃망울을 터뜨리는 400여 년 된 고매(古梅)와 수선화를 시작으로 늦가을까지 다양한 꽃들이 피고 진다. 거창한 이름을 붙이는 대신 그저 '나만의 정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입소문을 듣고 할머니의 정원을 찾는 이들이 많다. 밤중에 풍기는 은은한 향기와 우물 속에 똑똑 떨어진 자산송 꽃잎에 대해 얘기할 때는 서정시인과 다름없다. 할머니는 "일 년 살 놈(에너지)을 봄에 얻는다"면서 "꽃을 가꾸면 행

은 몸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개인이 정성껏 가꾼 정원은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과거의 정원이 '은일'(隱逸·세상을 피하여 숨음)에 방점을 찍었다면 현대의 정원은 '치유'에 중점을 두는 듯하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을 지나오며 대중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초록의 힐링 효과를 체험할 수 있었다.

광주와 전남·전북 지역에 25곳의 민간 정원이 조성돼 탐방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또한 순천만 습지

'정원에 삽니다'

#정남도 제1호 민간 정원으로 등재된 '힐링파크 속섬속섬'은 김상현·고재훈 부부가 가꾼 해상 정원이자. 부부는 2000년 새해에 '평생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서로 종이에 썼다. 이를 통해 부부는 '사회에 기여하는 삶'과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같은 꿈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됐고, 속섬(애도)에 정원을 가꾸면서 부부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항에서 2km 떨어진 속섬에 조성돼 있어 배편을 이용해야 한다. 농선 꽃정원에 앉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

등 세 개 권역에서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10년 만에 열린 정원박람회 주제는 '정원에 삽니다'이다. 마스크를 벗고 처음 맞는 새봄, 정원지기의 이야기와 팅팡울이 배어있는 초록 정원에서 봄 햇살을 만끽하면 어떨까.

"사람들은 작은 화단, 한 뼘기의 햇빛은 땅을 갖가지 색채의 물결로 넘쳐흐르게 바꾸어 놓는다. 우리들의 눈은 위안을 받는다. 그곳이 바로 천국의 작은 정원이다."(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

/송기동 예향부장 song@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대표전화 222-8111, 222-0551, 편집국안내,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전남본부